

'짠돌이' 전원주, 500만원 피부과 시술…"주름 하나 없이 매끈"

등록 2026.02.04 00:00:00



[서울=뉴스시스] 배우 전원주가 피부과에서 500만원 상당의 리프팅 시술을 받은 근황을 공개했다. (사진 = 유튜브 채널 '전원주인공' 캡처) 2026.02.03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 이종희 기자 = 배우 전원주가 피부과에서 500만원 상당의 리프팅 시술을 받은 근황을 공개했다.

3일 유튜브 채널 '전원주인공'에는 '청담동 피부과에서 20년 젊어지는 피부 리프팅 시술받고 온 전원주. 그런데 가격이 얼마?'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

영상에서 전원주는 절친한 배우 서우림과 함께 청담동 피부과를 찾았다.

전원주는 "이제는 늙는 것도 좋지만 급게 늙는 게 소원"이라며 "거울 들여다보면서 빨래판처럼 주글주글하면 'TV에서 안 쓰겠구나. 늙었다고 안 쓰겠구나'하고 피부를 잡아당겨 본다"라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"10년만 젊게 됐으면 좋겠다"고 바람을 전했다.

이에 의사는 "고령 환자는 두 가지다. 성형외과 쪽으로 가서 아예 거상 수술을 받는 경우, 피부과로 오시는 분들은 티가 덜 나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걸 추구한다"라고 설명했다.

전원주는 평소 신경 쓰이던 볼의 흑자 제거를 비롯해 울세라, 티타늄, 온다, 보톡스 시술 등을 받기로 결정했다. 예상 비용만 약 500만원. 평소 짠돌이로 소문난 전원주는 "잘해달라"고 의사에게 당부했다.

가격을 들은 서우림이 "말도 안 된다. 500만원을 들어서 뭘 그런 걸 하나"고 말렸지만, 전원주는 "1000만원 넘는 것도 있다. 젊은 사람들은 한다더라"고 했다.

전원주는 시술받는 동안 통증에 움찔거리면서도 참았다. 시술이 끝난 뒤 전원주의 얼굴을 확인한 서우림은 "완전 동생이 됐다"며 "주름 하나 없다. 매끈해졌다. 피부가 진짜 젊어졌다"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.

전원주는 "예뻐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"라며 달라진 모습에 만족감을 드러냈고, 시술비를 직접 결제하며 통 큰 면모를 보였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